

정현관 박사 역시 헛개나무꿀 채밀시험을 해본 결과 아카시아꿀에 비하여 5배(꿀 2.5배, 과명, 잎, 물 2.5배)나 많은 생산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 중에 2배의 효과만 달성해도 꿀에 대한 완전관세 철폐를 감수하고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강남에서는 집집마다 마누카 꿀을 보관하여 먹고 있다고 하니 헛개나무꿀, 엄나무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전국의 양봉가족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밀원수를 열심히 심어 힘든 이동을 하지 않고 고정으로 안정적인 양봉을 할 수 있는 양봉천국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 농협, 꿀 유통가격 ‘폭리’

소비자 판매가격, 농가수취값의 2배 훌쩍

### ▶저가 수입산 활개 ‘소비 위축’

꿀 유통가격의 폭리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양봉농가들에 따르면 올해 유래 없는 흉작으로 꿀 생산량도 많지 않은데다가 농가에서 수취해가는 가격보다 소비자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는 것이다.

현재 농협벌꿀(2kg)은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인터넷 등에서 3만6000원에서 4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반해, 농가수취가격은 최고 품질(수분함량 20%미만)이 288kg당 220만원, 수분함량이 많은 저품질 꿀은 170만원선이라는 것이다. 이를 1kg으로 계산하면 농가수취가격은 약 7640원으로 소비자가격(18000~20000원선)의 반값에도 못미친다. 여기에 포장비, 인건비, 광고 등을 포함해도 높은 가격이다.

경남 창원에 양봉농가 승병권 씨는 “양봉농가들은 지금 인건비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현실”이라며 “포장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도 농가수취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 정문기 농협중앙회 차장은 “현재 농협계통 매장은 약 10%의 마진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포장비, 인건비뿐만 아니라 유통비, 광고비, 할인행사 등 추가비용이 1kg당 4000~5000원정도 든다”고 설명했다.

전기현 한국양봉협회 회장은 “생산농가도 어려운 실정이고 전국 벌꿀유통업체에서도 마진이 남지 않는다며 판매를 꺼리는 실정”이라며 “값싼 수입꿀에 밀리고 국내산 꿀 소비량 자체도 줄고 있어 생산농가와 유통업체,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특히 전기현 회장은 소비촉진을 위해 농협의 유통가격의 폭리보다는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